

변화하는 글로벌 LNG 질서 속 모잠비크 LNG가 던지는 질문 Mozambique LNG at the Crossroads of a Shifting Global Energy Order

김주영

그동안 글로벌 LNG 시장 질서는 카타르, 호주, 미국 등 주요 공급국을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미·중 전략 경쟁의 장기화, 그리고 최근 발발한 이란 전쟁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 곳곳에서 심화되는 갈등과 경쟁 양상은 기존 LNG 공급망의 구조적 변동을 야기하고 있다. 나아가 이는 기존 LNG 질서 속에서 오랜 기간 경제·안보적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해 온 아시아 및 유럽의 주요 LNG 국가들로 하여금 에너지 안보 관련 대내·외 전략을 전면 재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프리카 LNG는 새로운 전략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동 또는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원 다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한 아시아 및 유럽 국가들에게 있어 아프리카 LNG는 인도양 항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등 분쟁 해역을 우회할 수 있다는 지정학적 이점을 지닌다. 그 가운데 모잠비크는 특히 주목할 만한 사례다. 2010년대 들어 동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매장량이 잇달아 발견되면서 모잠비크는 신흥 에너지 생산국으로 급부상했다. 이후 팬데믹과 북부 카보델가도 지역 IS 연계 무장 세력의 공격으로 장기 정체를 겪었던 LNG 프로젝트들이 최근 2030년경 공급을 목표로 건설 재개되면서 모잠비크는 아프리카 최대 LNG 수출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다시금 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론 이면에 자리한 모잠비크의 구조적 한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대규모 공급을 담당할 프로젝트들의 생산 개시가 글로벌 LNG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2030년경과 맞물린다는 점은, 아시아·유럽 수요국과 모잠비크 자국 모두에게 서로 다른 방식의 딜레마를 던진다. 수요국 입장에서는 공급 과잉 속에서 모잠비크 LNG를 선택할 유인이 약해질 수 있고, 모잠비크에게 있어서는 LNG 개발을 통한 경제 발전이라는 국가적 목표의 출발점 자체가 불리한 조건 속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즉, 변화하는 글로벌 LNG 환경 속에서 모잠비크 LNG는 수요국에게는 너무 늦은 대안이, 모잠비크에게는 너무 늦게 열린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오늘날 모잠비크 LNG는 미국의 기술력·자본력과 중국의 자본력이 맞부딪히는 전략 경쟁의 현상으로서 글로벌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결국 모잠비크 LNG가 아시아와 유럽 수입국들에게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는 에너지 수급의 문제임과 동시에 지정학적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모잠비크 LNG를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공급처 다변화의 문제를 넘어 누가, 어떤 방식으로 모잠비크 LNG를 활용하고 그 경제적 수혜와 지정학적·환경적 대가를 감당하는가라는 보다 복합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음을 시사한다.

김주영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이며, 영국 킹스칼리지런던에서 국제정치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자원 거버넌스와 에너지 지정학을 주요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

일시: 2026년 4월 21일 (화), 12:00-13: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304호